



생생리포트



혼자이되 혼자이지 않은,
청년들의 걱정만 일상 공유

I. 정류장에서

II. 정류장에서 만난 사람들

III. 우리에게 더 많은 정류장이 필요하다

청년아지트 강동팻 대표

이진영 handulsen@gmail.com

생생리포트

혼자이되 혼자이지 않은, 청년들의 걱정만 일상 공유

I. 정류장에서

1. 버스를 기다리다

고도로 개인화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연대, 협력, 공유, 커뮤니티와 같은 단어들은 어떤 의미로 인식될까? 특히 1980~1990년대에 태어나 현재 청년이라는 세대로 불리는 사람들은 특히나 내가 가진 무엇과 상대방이 가진 어떤 것을 기꺼이 서로 주고받으며 '관계'라는 이름으로 엮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이들은 그렇게 살아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파리 시내의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예로 들며 집단을 이야기했다. 버스정류장에 모여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하며 이들의 관계는 우연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이다.

현대사회, 거대도시 서울에서, 각자도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는 사르트르가 이야기하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것만큼일지 모른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청년들의 연대와 협력, 커뮤니티라는 개념 아래 삶과 일상을 공유해 나간다는 것은 영영 이룰 수 없는 목표일지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각자의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니까.

2. 청년아지트 강동팻

각자의 버스를 기다리며 서로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이지만, 조금은 아지트다운 공간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공통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지난 2014년, '청년아지트 강동팻(이하 강동팻)'이라는 마을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 강동구는 관내에 위치한 대학교도 없고, 주거밀집지역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그동안 청년들의 이슈를 의제

로 삼아 활동하거나 교류하는 단체가 거의 없었다. ‘청년’을 의제로 삼아 활동을 하고, 공간을 운영한다면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했다. 강동팓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은 1인가구 비율이 높다는 것이었다. 인접한 두 동 성내2동과 천호3동의 1인가구 비율은 2015년 현재 각각 43.1%와 45.7%이다. 1인가구 중 청년이 아닌 세대의 비율도 검토해야 하지만, 굳이 세대를 가르지 않더라도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고 있을 많은 이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림 1〉 청년아지트 강동팓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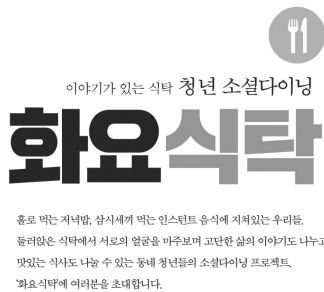
Ⅱ. 정류장에서 만난 사람들

사람들이 소통하고 엮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지만 강동팓은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정류장’ 느낌이길 바란다.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부담되거나 강요하는 느낌이 들면 안 되고, 자연스러운 소통

이 일어났으면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각자의 버스를 잠시 기다리다가 버스가 오면 홀연 떠나버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공간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작은 이벤트를 계기로 대화하고,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게 하려고 참 어렵지만 ‘적절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부터 강동팻에서 시도해 온 다양한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청년 소셜다이닝 ‘화요식탁’

‘화요식탁’은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이다. 팻팻한 일상을 살아가는 마을청년들이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함께 모여 따뜻한 밥 한 끼를 만들어 먹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팻팻한’ 일상을 꿈꾸어 보는 것인데, 매번 이야기의 주제와 식사 메뉴를 달리 하여 진행한다. ‘성안마을 독거청년의 집밥 레시피’, ‘치킨보이 사장님의 청년창업 이야기’, ‘유학 시절 외로움을 달래주던 서울푸드’, ‘프리백수를 자처하는 포토그래퍼의 사진 이야기’, ‘메르스를 이겨내는 건강밥상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 2〉 청년 소셜다이닝 화요식탁



〈그림 3〉 청년 소셜다이닝 화요식탁

2. 공유부엌: 공식(共食)의 가치

‘공유부엌: 공식(共食)의 가치’는 함께 밥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매개로 일상을 공유하는 문화적인 부분에 조금 더 특화된 프로그램이다. 주로 주말(일요일 오전부터 오후까지)에 모여 함께 만들 음식의 메뉴를 정하고 장을 보며 요리를 한다. 그날 만든 음식은 각자 가져가기도 하고 마을의 다양한 주민과 나누기도 한다. 주로 1인가구들의 참여가 많은 편인데 서로 비슷한 관심사가 생



〈그림 4〉 공유부엌: 共食의 가치

기면 함께 다른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해 보기도 하고, 꾸준히 참여하는 사람들은 '식구'라는 이름의 '멤버십'으로 지속적이고 확장된 교류활동을 하고 있다.



〈그림 5〉 공유부엌: 共食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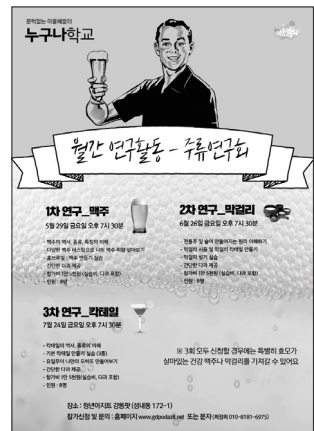


〈그림 6〉누구나 학교: D.I.Y 페인팅 체험

3. 문턱 없는 마을학교 '누구나 학교'

‘누구나 학교’는 누구나 가르치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문턱 없는 마을학교이다. 강동팍 공간을 찾는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열어 놓은 공유학습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열린 개념으로 시작했지만 오랫동안 익숙해져버린 ‘학교’라는 개념들이 남아있어 운영 초반에는 인문학이나 철학 등의 주제로 4, 5회차 연속으로 진행하는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해보니 청년과 마을주민들의 욕구는 학습이 아니라 체험 및 실습에 있는 것 같았다. 연속으로 진행되는 교

육에는 참가율도 들쭉날쭉하였고 만족도도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육을 받고 싶거나 강의를 해보고 싶은 수요가 파악되면 기획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고, 그러고 나니 기획과 운영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화요식탁’이나 ‘공유부엌’과 연계하여 리빙라이브러리(사람책 도서관)를 진행해 보기도 하고, 셀프가드닝이나 페인팅 체험, 맥주·막걸리·각테일 등 직접 술을 만들어 보는 ‘주류 연구회’ 등 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주제와 사람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누구나 학교’ 프로그램을 계속해 나가려고 한다.



〈그림 7〉누구나 학교: 주류연구회

Ⅲ. 우리에게 더 많은 정류장이 필요하다

정류장은 정류장일 뿐이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노선을 안내하는 것, 정류장의 역할은 그뿐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정류장에 잠시 머무르며 누군가의 삶을,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많은 활동은 ‘정류장’의 의미와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

1.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커뮤니티 공간

청년들을 모으고 엮어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얻게 된 가장 큰 성과는 ‘커뮤니티 공간’이 품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공간’을 향유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있고 그 욕구는 매우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3명 중 1명은 주거빈곤상태에 있고, 청년들의 소득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날 수 없다면 공동의 공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

‘커뮤니티 공간’의 정의가 다양하긴 하지만 소비(금전거래, 물품판매)를 매개로 이뤄지는 상업시설이나 이력 쌓기, 혹은 시간 때우기를 위한 여타의 공간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저 언제, 어떤 이유로라도 공간에 머무를 수 있고, 사람을 만나고, 서로의 안부를 지속적으로 걱정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서로에게 ‘비밀 언덕’이 되어주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커뮤니티 공간’ 말이다.

물론 공간의 수가 양적으로 늘어난다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편으로는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범위의 참여를 제안하여 공간이 스스로 운영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2.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정류장이어도 괜찮아

자이도 혼자이지 않은 일상이란 무엇일까? 가사처럼 이웃에 방해가 될까 봐 ‘슬픈 노래를 부르며 자정의 공원을 혼자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고된 하루의 일상을, 가끔씩 찾아오면 감정의 북받침을,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관심 아래’ 공유하고 이해받는 것이 아닐까? 그런 관계들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상의 다양한 지점들에 서로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거점이 있어야 한다.

다시 버스정류장으로 돌아와, 그들 각자의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며, 무언가 이벤트를 경험하게 되면서 공통의 관심사가 생긴다면,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함께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새로운 버스 노선을 제안하거나 그들 스스로 직접 버스를 몰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 다양성을 제공하는 장(場; field)으로서 마을 곳곳에 좀 더 많은 정류장이 생긴다면 어떨까. 정류장이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림 8〉 청년아지트 강동팻 전경

내일은 출근해야 하고
주변의 이웃들은 자야 할 시간
벽을 쳤다간 아플테고
갑자기 떠나버릴 자신도 없어

그래 알고 있어 한심한 걸
걱정끼치는 건 나도 참 싫어서
슬픈 노랜 부르면서
혼자서 달리는 자정의 공원

브로콜리 너마저,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가사 중

